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943
----------	------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정진술, 최 선, 오현정, 김경우,  
이정인, 이은주, 김상훈, 홍성룡,  
송명화, 김평남, 장상기, 이승미  
의원(12명)

##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정부(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 16.3km)를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결정('16.6월)한 바 있고, 2020년에는 홍대~원종~청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B/C=1.03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음. 또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25.72km)이 2021년 착공 예정임.

-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은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노선임.
- 이에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건설 추진과 교통 연계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교통혼잡 개선과 강남·북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원종역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16.3km, 총 사업비 2조 1,664억 원의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인 원종·홍대선을 포함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원종홍대선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지원하였다.

이어 2019년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원종·홍대선을 광역교통 비전 2030에 포함시켰고, 2020년에는 홍대~원종~청라 구간의 사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B/C=1.03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강북횡단선이 2021년 착공예정이다.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은 총연장 25.72km로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의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기반 시설로 기능하여 동·서간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서부지역 광역철도(원종·홍대선)와 강북횡단선은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철도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비 2조 1,664억 원과 2조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여러 문제로 인하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강북횡단선의 원활한 건설 추진과 교통 연계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교통혼잡 개선과 강남·북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20. 10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